

사회

로드킬 피하러다 '꽁꽁꽁'

어제 순천 주암서 차량 3대 연쇄 사고 ... 5명 중경상을 호남고속도로서 93건 ... 인공 '생태로' 확충 시급

야생동물이 길 위에서 차량에 발혀 죽는 이른바 '로드킬'(road kill). 하지만 로드킬은 동물만 위협한 게 아니었다. 사람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1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로드킬이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야생동물보호 표지판

◇사고 개요=12일 새벽 2시40분께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서순천 기점 20.8km 지점에서 이모(65·경기도 화성시)씨의 1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1·2 차로 사이의 폭무게 100kg·몸 길이 1m의 멧돼지 사체를 피하러다 벌어진 일이다.

뒤따라오던 에쿠스·NF 쏘나타(운전자·천모·28·여·수시 화동)·유타마리갈(이모·35·여·수시 안산동) 승용차도 멧돼지를 피하러다 가드레일을 충돌한 뒤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NF 쏘나타 운전자 천씨가 크게 다쳐 서울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로드킬을 당한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천씨 등 4~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사고 장소=?=사고가 난 장소 맞은편에는 마을이 있으며,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곳에는 여러 개의 야산이 있다. 주암면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1·2 차로 사이의 폭무게 100kg·몸 길이 1m의 멧돼지 사체를 피하러다 벌어진 일이다.

◇사건 개요=12일 새벽 2시40분께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서순천 기점 20.8km 지점에서 이모(65·경기도 화성시)씨의 1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1·2 차로 사이의 폭무게 100kg·몸 길이 1m의 멧돼지 사체를 피하러다 벌어진 일이다.

지 호남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모두 93건에 이른다.

◇사고예방 시설 부족=전문가들은 로드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야생동물 유도시설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의 경우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도시설에는 유도울타리·생태통로 등이 있다. 호남선·남해선·88선 등 7개 노선 호남고속도로에 설치된 높이 1m~1.5m의 로드킬 예방 유도울타리는 총 길이 600.5km 중 29.2%(175.5km)에 불과하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총 길이 184km의 호남선에는 유도울타리가 40%(75km) 구간에만 설치돼 있다. 인공 생태통로도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생태통로가 설치된 곳은 호남고속도로 무안기점 37.4km 지점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은 4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청소년문화수련관의 리기다 소나무들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집단 감염돼 초록색 잎이 적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청소년문화수련관 임야

소나무 수백 그루 고사 위기

푸사리움병 확산

광주시 북구 청소년문화수련관 임야에 미국 삼엽송으로 불리는 리기다 소나무 수백 그루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 북구 청소년문화수련관 전체면적 8만7710㎡ 중 산림면적(5만5448㎡)에 심어진 리기다소나무 200그루가 집단 고사 위기에 빠졌다. 수령 20년 이상된 높이 5m~10m·지름 30cm~50cm의 리기다소나무의 잎이 초록색에서 적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고 있다는 것이다.

푸사리움병에 걸린 소나무는 감염 부위에 송진이 흐르고 잎이 적갈색으로 변해 끝내 말라죽어 벌채를 통한 수종갱신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구는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리거나 나무 밀도가 높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점의 나무를 베어낼 예정이다.

특히 병에 걸린 리기다소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어 해충을 제거하는 약물도 투여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제기돼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데, 구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리기다소나무 대신 이팝나무·왕벚나무·적송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해 심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대광여고 外高 전환 신청서 제출

2012년 개교 목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신설 및 전환 신청 공모를 마감한 결과 학교법인 흥복학원(대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해질 19시 48분 달돋이 06시 51분 달질 20시 50분

장마전선 다시 북상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	차차하러제비	22/28°C
광주	차차하러제비	22/28°C
목포	차차하러제비	22/26°C
여수	차차하러제비	22/25°C
완도	차차하러제비	22/25°C
구례	차차하러제비	22/28°C
해남	차차하러제비	22/26°C
장흥	차차하러제비	22/26°C
고흥	차차하러제비	21/26°C
순천	차차하러제비	22/27°C
영광	차차하러제비	22/29°C
진도	차차하러제비	21/30°C
전주	차차하러제비	20/29°C
남원	차차하러제비	20/29°C
옥산도	차차하러제비	20/25°C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8	23/29	23/30	23/29	23/31	24/31

천둥 번개 동반 장대비

광주·전남 모레까지

13일 밤부터 광주·전남지역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3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낮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께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12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20~60mm.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으며, 짙은 안개가 끼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하겠다.

이번 비는 제주 남해상에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5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7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태풍 '곶선' 북상

한반도 비켜갈 듯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030km 부근 해상에서 제2호 태풍 '곶선(Conson)'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에 포착된 이 태풍은

서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진행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곶선의 예상 이동 지점은 13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610km 부근 해상, 14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 15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북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이다.

연합뉴스

"오현섭 전 시장이 '결자해지' 하라"

잠적 23일 ... 여수 정가·시민단체 빠른 출두 촉구

"오현섭 전 시장은 빨리 수사에 응해 의혹을 해소하라."

'여수시 경관조명 뇌물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잠적이 길어지자 여수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 전 시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주승용·김성곤 의원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전 시장이 잠적한 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 매우 당혹스럽다"며 "하루 빨리 출두해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수시장 민주당 후보 공천을 비롯, '경관조명 수뢰 사

건'의 전·현직 지방의원 연루 등 지역 최대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등 50여명은 지난달 말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온 오 전 시장이 결국 수사 당국의 출두를 피해 잠적했다"며 "오 시장과 사건 관련자들은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혀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도 최근 성명을 통해 '경관조명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수지부는 또 "이번 비리사건

과 관련해 여수시 모든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석고대죄한다"며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여수시의정동우회도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있는 오 전 시장은 즉각 경찰에 출두하고,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광주지역 일대에서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건설업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오 전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부채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무안공항출발 전세기 상품안내

캄보디아(앙코르왓)+베트남(하롱베이) 6일 **₩ 849,000** **₩ 699,000**

- 출발일 : 7월 22일(목), 7월 27일(화), 8월 6일(금), 8월 11일(수)
- 위 상품은 매회 30석 한정신청순 특가상품입니다.
- 무안출발(10:00) ↔ 무안도착(08:00)

TEL. (062) 385-3355 FAX. (062) 385-3357